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사순 제 2주일
제37권 16호(가해) 2017년 3월 12일

[묵상]



<예수님의 얼굴은 해처럼 빛났다>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는

부활의 영광을
앞당겨 체험케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상 안에서,
오직 떠남과 포기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만이
이러한 체험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자기포기라는 십자가의 길은 마다하고,
부활의 영광만을 체험코자 하는 것은
그릇된 신앙 자세입니다.

일상의 여정 안에서,
떠남과 포기가 고통스럽고 힘들게 느껴질 때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모가 이루어진 높은 산을 바라보면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케 될 희망을 간직함으로써,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오-

petrus3@hanmail.net

- ※ 고해성사 : 미사 30분 전
-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접수
-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 병자영성체 : 매월 둘째, 넷째 수요일 오전 9시출발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213)222-3168
연령회 (장래시 연락처) : (310)780-2789

월요일	새벽 미사	오전 6:30
화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신심 미사(첫 토요일) 저녁 미사 (청년미사)	오전 8:30 오후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7:30 오전 9:30 오전 11:00

주간행사표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에	오후 8:00
목요일	성 시간 (첫 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성령기도회	저녁 미사후 오전 10:00 오후 8:00 오후 8:00
금요일	성경공부(성경통독)	오전 9:30
토요일	제대회 모임(첫토요일) 유아세레(깎수달 넷째 토요일) 울뜨레아(넷째 토요일) 배론청년회 모임	오전 10:00 오후 6:00 오후 8:00 저녁 미사 후
주일	레지오 마리아 아도라떼 성가대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대견회) ●꾸리아 오후 1:30 3째주 - ●요셉회 4째주 - ●사목회 ●빈첸시오회	오전 중 오전 8:30 오전 9: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오후 1:00

사무실 업무 시간 안내	
주일	8시(오전)~4시(오후)
월	CLOSED
화	CLOSED 2:00~7:00(오후)
수	9:30~11:30(오전) 2:00~7:00(오후)
목	9:30~11:30(오전) 2:00~7:00(오후)
금	9:30~11:30(오전) 2:00~7:00(오후)
토	9:30~11:30(오전) 2:00~7:00(오후)

주임신부 : 오창근 베드로 (310)326-4350 Ext.106
전교수녀 : 김임식 마누엘라 (310)326-4350 Ext.102
종신부제 : 최영신 프란치스코 (213)637-9000
평협회장 : 최기남 야고보 (310)569-3940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한국 교회의 역사

제3부 한국 교회와 현대 사회(1945-1999년)

4. 현대 교회의 좌표(1984-2000년)

4-2. 현대 교회사의 진행 방향

1980년대 당시 교회의 민주화 운동이 이룬 성과 가운데는 언론 운동이 있다. 당시 공영 방송인 한국 방송 공사(KBS)가 앞장서서 정부 시책을 선전하고 사실을 왜곡한다고 판단, 전주교구 고산 성당과 가톨릭 농민회에서는 1984년부터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1986년 한국 천주교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를 통해서 여러 교구로 확산되면서 국민의 동의 속에 전국적으로 번져 갔다. 이 운동은 관제 언론에 대한 비판 의식을 강화하였으며, 왜곡된 방송의 방향을 수정시키는 데 일정하게 기여하였다. 한편, 1980년대는 적대적이던 남북한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한 민간 측의 노력이 고조되기 시작한 시기이다. 1989년, 천주교 신자인 대학생 임수경이 남한의 실정법에 도전하며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의 청년들과 통일 문제를 협의하였다. 이를 지지하고 임수경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정의 구현 사제단은 문규현(文奎鉉) 신부를 북한에 파견하였다. 이들은 귀국 직후 체포되어 수감 생활을 하였다.

4-3. 북한의 신자 공동체

북한 사회에서는 1970년대 이래 조국 해방과 통일을 위한 통일 전선론이 강화된다. 이 원칙 아래에서 북한 당국은 종교 신앙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다. 1980년대 이래로 북한 정권 당국은 종교 또는 천주교에 대한 정책을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하여, 1983년에는 한국 전쟁(1950~1953년) 이후 처음으로 복음서가 북한에서 출간된다. 1988년 평양에는 개신교 교회당과 천주교 성당이 한국 전쟁 이후 처음으로 세워진다. 그리고 천주교 신자 단체인 '조선 천주교 인 협회'가 천주교인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구로 창설되어, 1999년에는 '조선 카톨릭 협회'(위원장: 장제언)로 이름을 변경하여, 평양 선교 구역에 자리잡은 '장충 성당'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오늘의 성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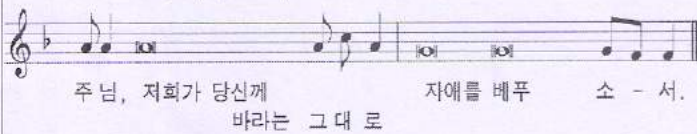
< 계속 >

토요 저녁 미사	(연) 이용식 베드로, 박승주 카타리나의 조상 & 레이몬드
	(생) 박승주 카타리나의 가족
주일 학생 미사	(연) 박종무 바르톨로메오, 김정강 세실리아
	(생) 박예지
주일 낮 미사	(연)오원순 안나, 송기분 수산나, 정동점 마리아, 변 안드레아 & 변올리안나, 박정미 클라라, 서성용 베드로, 고준희 제임스, 권순봉 요안나, 김봉태 바오로 & 염고도 마리아, 김정혜 수산나, 찬 호프시티드 & 잔위커 & 스티브 머리에
	(생)손석 스테파노, 이재용 안드레아가정, 김준수, 빅토리아 Lee & 신태림, 이형삼 요셉 & 이해숙 요세피나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창세기(Genesis) 12,1-4

화답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자애를 베푸소서.



○주님의 말씀은 바르고, 그 하신 일 모두 진실하다. 주님은 정의와 공정을 좋아하시네. 그분의 자애가 온 땅에 가득하네.○
○보라, 주님의 눈은 당신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당신 자애를 바라는 이들에게 머무르신다. 죽음에서 그들의 목숨 건지시고, 굶주릴 때 살리려 하심이니네.○
○ 주님은 우리 도움, 우리 방패. 우리 영혼이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저희가 당신께 바라는 그대로, 당신 자애를 저희에게 베푸소서.○

제 2독서 티모테오2서(2Timothy) 1,8-10

복음 환호송 ○길ियो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님, 찬미받으소서.
○빛나는 구름 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려왔네.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복음 마태오(Matthew) 17,1-9

영성제송 이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 내 마음에 드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시작	154	154	153
봉헌	270	270	264
성체	289	289	285
파견	157	157	155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질 때 위로와 부활의 빛이 나를 감쌉니다.

사순 제2주일을 지내는 오늘, 교회는 우리에게 주님의 거룩한 변모를 대면시켜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그의 동생 요한만을 따로 데리고 산으로 오르신 예수님의 모습이 변하십니다. 얼굴은 해와 같이 빛나고 옷은 빛과 같이 눈부십니다. 구약의 대 예언자인 모세와 엘리야가 난데없이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어떠한 대화를 나누셨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알 수 없으나, 분명 이 장면은 산 위에서 벌어지는 천상의 모습, 부활의 모습입니다. 그것도 십자가와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을 향해 걷는 여정의 한가운데서 말입니다.

오늘의 감사송에서는 변모의 참 의미를 이렇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죽음을 제자들에게 미리 알려 주시고, 그 거룩한 산에서 당신의 영광을 보여 주시어, 구약과 율법과 예언서에 기록된 대로 수난을 통해서만 영광스럽게 부활한다는 것을 밝혀 주셨나이다.”

누군가를 위해서 겪어야 할 수난, 또 누군가를 위해 짊어져야 할 십자가, 이는 부활의 빛과 생명을 보여 주는 약속인 것입니다. 오직 그 십자가와 수난을 통해서만 부활의 빛과 생명을 맛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내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뿌리입니다.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십자가가 누군가를 받아들이고 사랑하기 위한 것 때문이라면 그 안에는 예기치 않은 부활의 빛이 발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잘 아는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80세 후반의 어머니를 모시고 살아가는 그의 가족은 신앙이 돈독하고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이 가정에 반갑지 않은 불청객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어머니의 치매입니다. 늘 어머니께 마음을 다하는 부부지만, 마음의 평화가 깨지는 것을 막을 길은 없었습니다. 이유는 하나뿐인 형님 부부가 어머니의 치매에 대해 나 몰라라 하는 태도 때문입니다. 고해성사를 보던 그는 결심을 하고 형님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형님을 미워하지 않으려고

노력할게! 나 때문에 보고 싶은 엄마를 찾아뵙지 못할까봐 그러는데, 엄마를 보고 싶거든 어느 곳에 위치한 데이케어센터(day care center)에 가봐. 뵈 수 있을 거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음이 무척 편해졌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십자가 속에 내재되어 있는 부활의 영광, 이를 가슴에 품고 신뢰하는 사람들, 그들은 항상 희망 속에 열려 있습니다. 하느님의 약속이 그들을 받쳐주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실현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 약속을 확신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십자가를 질 때, 위로와 부활의 빛이 나를 감쌉니다.

제2독서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그대여, 하느님의 힘에 의지하여 복음을 위한 고난에 동참하십시오.”(2티모 1,8)

◆홍성만 미카엘 신부 /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담당

아기 옆에서

이제 막 백일 된 아기가 낮가림 하네.
자꾸 쳐다보며 울더니 아무리 달래도
제 엄마 품에서야 겨우 울음을 그치네.
서운함도 잠시 아가의 저 심한 낮가림
참으로 부러워라.
어찌자고 난 그 어떤 경계도 없이
온 세상 모든 것에
무조건 순응하고 타협하고 익숙해지는가.
옳은 것에만 편해지는,
나도 낮가림 심한 사람이고 싶어라.

-이영 아네스-

이번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정진욱 노엘	신덕례 테레사	정광미 프란체스카
제1독서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민상 요한	이영식 크리스토퍼
제2독서자	유보나 보나	이순자 비비안나	전하현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복 1,2반

다음주 전례봉사가

다음 주	토요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조병준 플로렌시오	이호미 엘리사벳	송인선 안젤라
제1독서자	정진욱 노엘	박혜경 레나타	장영진 안토니오
제2독서자	이만석 미카엘	한정숙 안나	강혜원 아네스
제물봉헌자			하비/카슨 1,2반

-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 은혜로운 미사를 위하여 미사 시작 30분 전에 묵주기도 5단을 바칩니다. 묵주기도와 함께 정성껏 미사를 봉헌합니다.

✦ 사순시기 ✦

◆사순절 전신자 십자가의 길...금요일 저녁미사후
사순시기중 금요일 미사가 오후 7시30분 저녁미사로
변경되며, 미사후 전신자 '십자가의 길' 기도가 진행됩니다.

3/17(금)- 양업회
3/24(금)- 요셉회
3/31(금)- 소공동체
4 /7 (금)- 본당 꾸리아
4/14(금)- 안나회 (오후 3시에 합니다.)

◆사순절 합동판공성사 : 4월 4일(화요일)
재의수요일부터 성삼일 전까지의 고백은 판공성사입니다.
특히 어르신들께서는 미사 전에 드리는 고해성사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사순절 희생 애공 봉투
우리 가족의 희생, 극기, 보속, 선행으로 모아진 성금을 하
느님 대전에 정성껏 봉헌합니다. 애공 봉투는 주님 만찬
성 목요일(4월13일) 미사 중에 봉헌합니다.

- ◆ 부활절 앞두고 전신자 본당 대청소 실시
부활 대축일을 앞두고 성전 안팎과 2층 교실, 화장실,
부엌, 친교장 등 본당 시설물 구석구석을 대 청소합니다.
- 일시 : 3월26일(주일) 낮미사 마치고 점심식사 후
- 청소 담당구역 : 구역 반별로 배정
- 문의 : 김준 방지저 소공동체부장 ☎(310)625-3312

- ◆3월 요셉회 모임
- 일시: 19일 (주일) 11시 미사 후
- 장소 : 강당
- 연락처 : 정기은 비오 ☎ (310)780-2789

- ◆백삼위 주일학교 중고등부 사순피정
- 일시: 3월 17일 금요일 - 3월 19일 일요일 (2박 3일)
- 장소: 테메쿨라 꽃동네
(37885 Hwy. 79 South, Temecula, CA 92592)
- 대상: 중등부, 고등부
- 등록기간: 2월 12일 ~ 3월 12일
- 등록비 : \$ 60
- * 주일학교 중등부 사순 피정기간에 함께 봉사할
봉사자 모집합니다.
- 문의: 황선준 플로렌시오 ☎ 310-658-6654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 3월 12일: 북어국 (\$3, 하버/카슨1,2반)
*주일학교 : 짜장밥 (4학년)
- 3월 19일:홍합 미역국 (\$3, 토북 1,2반)
*주일학교 : 맛볼 파스타(5/2학년)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장순복 김교복 김기정 김 명 김병주 김상기 김선제 김성현 김양금 김여순 김 옥 김은학 김정선 김정웅 김중렬 김현숙 김형순 류현옥 박씨니 박운모 박인식 박정희 박종열 방정복 배태임 양영자 엄세중 엄정자 엄지선 위진록 윤석구 이근모 이상석 이원형 이은록 이인석 이정분 이제욱 이주창 임의웅 장영우 전동훈 전정일 정규숙 정임선 정판영 조준제 주대중 주용순 지경수 최기남 최길주 최수지 최열자 최지영 최희태 홍광선 황지영 한길선례 익 명	합계:\$ 6,095
성전헌금	장순복 김교복 김기정 김 명 김상기 김선제 김양금 김정선 김현숙 박씨니 박인식 박정희 방정복 양영자 엄세중 엄정자 엄지선 이근모 이상석 이은록 이인석 이정분 이주창 정규숙 정판영 조준제 주대중 주용순 지경수 최기남 최길주 최수지 최열자 최지영 홍광선 황지영 한길선례 익 명	합계 : \$2,440
주일미사헌금 : \$ 2,449 주일학교 스튜벤빌 등록 : \$3,060		
2차헌금: \$610 감사헌금:\$500(김행선)		

◆2017년도 SAT II 한국어 모의고사

- 일시: 3월 26일 오후 2시~3시
- 장소: 차후 공지

남가주 소식

◆3월 말씀과 함께하는 피정

말씀과 함께하는 피정은 하루 동안 성경을 집중하여 읽는 프로그램으로 관심있는 신자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 주제성경: 호세아 예언서~요나 예언서
-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개인 컵, 회비(\$10)
- 언제: 2017년3월 11일 오전 10시~오후 5시
- 어디서: 남가주 가톨릭성서임 센터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 신청 :714)521-1345

◆성서사십주간 신청

성서 사십주간은 구약,신약 성경전체 통독프로그램입니다.

- 오전반: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12시
- 저녁반: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30분-9시 30분
- 어디서: 남가주 가톨릭성서임 센터

6751 Western Ave. Buena Park, CA90621

- 준비물: 성경, 필기도구, 개인컵, 회비(\$70), 교재(\$50)
- 신청 :714)521-1345

소공동체 부 장	김 준 방지거 625-3312		
구역/장	반	반 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김춘자 막달레나 539-3377	1	오신재 메히틸다 713-4926	남명자 데레사 03/15(수)오전11시 성당
	2	장수영 페트릭 781-0787	신중철 아브라함 03/11(토) 오후6시 미쿠리
	3	윤미애 안나 560-7120	윤미애 안나 03/17(금)오후7시30분성당
토런스 서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1	박동수 베드로 218-7340	박동수 베드로 03/11(토) 오후5시
	2	최양숙 안젤라 800-7393	금동균 이나시오 03/11(토) 오후5시30분
	3	박명순 안나 968-7600	김 크리스찬 레지나 03/18(토)오전10시30분 성당
토런스 남 김희연 루시아 (213) 458-3356	1	김준 방지거 625-3312	십자가의 길로 대체 03/31(금)오후7시30분
	2	박정람 마르시아 634-6923	이윤옥 마리아 03/20(월)오전11시
	3	이희경 크리스티나 818-6903	전하현 마리아 03/11(토)오후6시
토런스 북 이복임엘리사벳 905-2225	1	황지영 안젤라 938-8089	김진우 사도요한 03/18(토)오후6시
	2	1반과 같음	
하버 카슨 주대종 다니엘 (818)640-9171	1/ 2	박진수 스테파노 749-3151	조소영 수산나 03/10(금) 오후7시 성당2층R3
P. V. 송인선 안젤라 (503) 927-0770	1	남해나 메네틱다 384-3289	송종두 요한 03/18(토)오후7시
	2	유지아 클라라 793-6157	이정미 아네스 03/10(금)오후7시
	3	신혜정 로사 213-369-0687	십자가의 길로 대체 03/31(금)오후7시30분
	4	이귀란 아네스 617-3568	김은경 올리안나 03/14(화)오전10시30분 성당

이번 주일 단체 모임

제 단체모임	1시
--------	----

다음주일 단체모임

요셉회	1시
-----	----

[본당의 복음자리]

본당 : 쉼터(Shelter)인가? 체육관(Gym)인가?

신앙생활의 동기를 물어보면 열에 아홉은 '마음의 평화'를 이야기한다. 지친 일상을 살다가 고요한 성전에서 마음의 평정을 복구하는 것은 신앙의 좋은 열매이다. 시끄러운 세상사 속에 어쩔 수 없이 아웅다웅 살아야 하는 '세속인'으로서 생각할 때 본당은 우리의 좋은 쉼터이다. 마땅히 본당은 평화와 고요 속에서 우리의 내면을 편히 누릴만한 곳이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열망을 지닌 다수가 함께 몸담고 있는 '공동체로서의 본당'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누군가의 평화를 위해서 누구는 속상한 일을 맡아야 한다. 누군가의 천사 닮기를 위해 누군가는 악마 같은 신경전을 벌여야 하기도 한다. 나의 평화로운 기도와 침잠을 위해서 옆 사람은 자주 방해꾼이 되기도 한다. 본당의 이런저런 일을 담당하면서 받는 스트레스는 내 신앙의 동기, 즉 '마음의 평화'를 저 멀리 밀쳐내 버린다. 차라리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좋은 상태로 홀로 있고 싶어지기도 한다.

본당의 또 다른 얼굴은 '체육관(gym)'이다. 체육관은 비교적 통제된 환경에서 우리의 근육들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곳이다. 심박수를 늘리기 위해 일부러 힘든 땀박질을 한다. 잘 통제된 환경에서 나를 조금씩 위험하게 만들어서 나를 강화시키는 행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곳이 체육관이다. 체육관에서 힘들어지는 것은 스트레스가 아니다.

본당은 비교적 온유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좀 실수해도 나를 여전히 품어줄 만한 사람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곳이다. 얼마간 위험이 통제된 곳이다. 그러나 이곳에서 우리는 안심하고 운동해도 된다. 내 영혼의 숨겨진 근육들을 자꾸 움직여서 나를 단련해도 된다. 공동체 구성원들 중 누가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면, 혹은 나의 침잠을 방해하면, 체육관 구석에 앉아서 주눅 들어 있는 나를 일깨우는 트레이너의 목소리로 알아듣자.

본당을 쉼터라고 보든, 체육관이라고 보든, 본당은 우리 여정의 종착지는 아니다.

◆ 김상호 신부 / 신선성당 주임

기도하는 삶

"그렇게 같은 말을 되풀이하는 기도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벤슨 몬시뇰이 쓴 소설 속의 한 소녀가 묵주 기도에 대해 수녀님께 질문하는 내용 중 한 구절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이 있는 가정에서 자라왔지만, 신앙심이 깊지도 않았고, 기도 생활과는 전혀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지라, 저 또한 위의 소녀와 비슷한 질문을 마음속에 늘 갖고 지냈던 것 같습니다. 살아생전 묵주를 손에서 놓지 않고 행복해하시던 외할머니, 10년 넘는 기간 동안 9일 기도를 한 번도 멈추지 않으시던 어머니를 봐 오면서도, '참 대단하시다'라고만 생각했을 뿐, 저 스스로 기도를 해야겠다는 마음은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 개수까지 다 알고 계시다는데, 그럼 굳이 기도로 알리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 원하는 일들을 다 알고 계시 테고, 이루어 주실 일이면 알아서 다 해주시지 않겠어?' 무언가 들어주십사 청한다는 행동 자체가 왠지 낮간 지럽고 염치없어 보이면서 불필요한 행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계속 그렇게 누군가에게 의지만 하며 사는 삶은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었지요.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은 나약함이 이끌어낸 잘못된 삶이라 생각하며 오랜 시간을 살아온 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무늬만 신자인 신앙생활을 하며, 가끔 냉담 속에 그분을 부정하려 멀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제게도 어느 날 진정한 하느님을 만날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제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던 광란한 상황 속에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손에 쥐게 된 묵주. 그렇게 시작하게 된 기도가 9일 기도였습니다. 그때 처음 만난 성모님은 정말로 따뜻한 분이었고, 하느님께 제 기도를 전해주시는 유일한 사랑의 어머니였습니다. 간절히 청하자 하느님께서는 놀랍게도 저의 버랑 끝 기도를 들어주셨고, 그때의 기적과 감사를 기억하며 저는 지금까지 수년째 9일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이 글을 쓰며 그때를 추억해보니, 참으로 절실하고 간절하게 기도드리던 제 모습이 떠올라, 지금의 제 기도생활을 반성하게 됩니다. 소리 내어 성모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문 한 구절씩 곱씹어 느끼던 진실하고 성실한 기도. 그 순수한 기도를 그분께서 얼마나 기쁘게 들으셨을 지를 생각하니, 그때의 첫 마음을 잊지 않고 기도하리라 하는 반성과 다짐을 하게 됩니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입니다. 하느님과 가까워지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기도라는 것을 알기 전과 후의 삶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염치없고 불필요한 행동이라 여겼던 기도에 대한 생각의 틀은, 그분께 작은 것 하나까지 말씀드리며 대화하는 시간들로 바뀌어 채워졌고, 자기 스스로 구원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관념들은, 기도를 통해 내안의 그릇됨을 찾아내어 반성함으로써, 그분께서 이끄시는 참된 삶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확신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아는 삶, 주어진 하루에 감사하며 그분께서 일상에 뿌려주신 소소한 축복들에 기뻐할 수 있는 삶. 하느님께서 기도를 통해 제게 알려주신 기적과도 같은 선물입니다.

◆ 손여은 카타리나 / 배우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3,2)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사순 시기란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고통을 당하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삶을 묵상하며 다가올 부활 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무엇보다 사순 시기는 회개의 시간입니다. 회개란 단순히 죄를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느님께 나아가는 은총이기도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하느님 말씀은 선물입니다. 타인은 선물입니다”라는 주제로 올해 사순 시기 담화를 발표하셨습니다. 교황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생명은 선물이기에 환대와 존중과 사랑을 받아 마땅하다”고 하시며 “하느님 말씀에 힘입어 우리는 눈을 열어 생명, 특히 취약한 생명을 환대하고 사랑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죄는 가난한 이를 멸시하고 차별하며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런 죄의 뿌리는 사람보다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황님은 돈에 대한 사랑은 타락의 근원이자 시기와 갈등과 의심의 원천이며 결국 돈의 노예가 되게 한다고 경고하십니다.

성경은 세상에 대한 무절제한 애착과 향락, 육욕과 탐욕, 재물에 대한 애착을 엄하게 단죄합니다. 인간이 이기주의에 빠져 세속적인 욕심만을 탐욕스럽게 추구한다면 사랑이신 하느님과 결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교회는 전통적으로 이웃이 굶주리고 고통을 당할 때 그것을 외면하고 자신의 부만을 축적한다면 죄악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성 대 그레고리오도 “가난한 이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준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선물이 아니라 그들의 것을 되돌려주는 것이다. 우리는 사랑의 행위보다 정의의 의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일시적인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정성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느님 안에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깨닫고, 다른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특별히 하느님 말씀은 살아있는 힘으로 인간의 마음에 회개를 불러일으켜 인간이 다시 하느님을 향해 사랑을 실천하도록 이끍니다. 이번 사순 시기 동안 하느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그리고 더 자주 접하도록 노력합시다.

우리나라는 현재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잘 극복하고 더 발전된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치가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회개해야 합니다. 당리당략과 이기심보다는 나라와 국민들의 공동이익이 무엇인지를 잘 헤아리는 진정한 지도자들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인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특히 신자들이 먼저 이 사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반성해야 합니다. 교회는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의 회개로 사회 전체가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마태 3,2)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사순 시기에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느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회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사순 시기에 말씀이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어머니이시며, 모든 인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의 전구를 통하여 여러분 모두에게 하느님의 은총이 가득 내리기를 기원합니다

서울대교구장
염수정 안드레아 추기경

하린 한의원

최이원 바르톨로메오/이현주 엘리사벳
3938 Sepulveda Bl. Torrance, CA 90505
☎(424)337-0788/0789

써니 사이드 장의사

OC & LA / 본사: 714-932-8091(24시간)
천주교 장례미사에 경험을 갖춘 3명 이상의
장례전문인이 서비스합니다.
서비스를 비교해 주십시오.
www.sunnysidecremation.com

수호천사보험

시니어메디케어건강보험전문(65세이상)
장래보험/장래적금/장래계획/모지구입문의
오바마건강보험(CoveredCA)공인 에이전트
Jay Lee(이안셀모) 310-908-8823
CA Inc.Lic.#0E75182

TIMEOUT

Café + Bar

15420 S Western Ave #C
Gardena, CA 90249
(구 카페베네)
310-715-1243

크리스 리 부동산

(310)619-7763 아가토
New Star Realty

그린힐스 공원묘지

조 마리아

☎ (310)521-4306
27501 S. Western Av. R.P.V., CA90275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광고문의 사무실

☎(310)326-4350

모든 집수리 전문

창문, 나무마루, 타일, 화장실, 부엌
한국식 온돌보일러 설치
김찬규 요한 ☎ (310)701-6343
1802 Plaza Del Amo Torrance, CA 90501

A-one auto center



AAA approved repair shop
바디 + 정비

~~~~~  
DIESEL ENGINE 전문 정비  
1-310-965-0481

www.aonetruckauto.com

15935 S. Western Av. Gardena  
권오상 바오로 & 순길 세실리아

Walnut Pastry

COCOHOODO Torrance  
(Internet Cafe)

2734 Sepulveda Bl. CA 90505  
☎(310)530-3875 BBN 은행 옆

"정성과 사랑으로 만든  
호도과자로 마음을 전달하세요."  
-오 잼마-

## 한국 장 의 사

(323)734-5656  
저렴한 가격으로 가족형편에 맞춰 상담해드립니다.  
사우스베이에서 오셔도 편리합니다.

## 수지 최 부동산

Broker Associate BRE# 00935665  
RE/MAX ESTATE PROPERTIES  
☎ (310) 408- 0883 cell  
suziechoihomes.com



토랜스 세플베다길

## 뚜레쥬르

새로운 패스트리 식빵  
디저트 샐러드 드링크 등

더욱 다양해진 메뉴(valid only at café TJL)

2841 Sepulveda Blvd

310-257-6848 이원호 요셉

## 파고다 캐더링

각종 밀반찬, 캐더링 주문 받습니다  
김원규 요셉 양희자 불라라  
☎ 310-326-5600  
2760 Sepulveda Blvd Torrance, CA

## 로미타 양로 보건 센터

가정부에서 메디칼 환자분에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입니다.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지켜  
드리기 위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도와 드립니다.  
김유미 사비나 (310)539-4800  
1234 W. Lomita Blvd., #E, Harbor City

## 오 미카엘(명섭) 치과

(310)835-7610  
111 E. Carson St. Suite #10  
Main St와 Carson 코너,  
Carson Plaza 내에 있음

## 스테파노 건축

김광일 스테파노  
☎(310)803-0777



은퇴/상속 전문

Financial Advisor  
유 보나

Prudential Life Insurance/Annuity/LTC/Trust  
푸르덴셜 Tel. 310-755-9837

## 플 라 자 약 국

PLAZA PHARMACY

Tel: (310) 530-3010 Fax: (310)530-7618  
3400 W. Lomita Blvd., Torrance, CA 90505

## 최기남 야고보 부동산

TEAM SPIRIT

상업용 / 주택 등 전문  
☎(310)569-3940

## 금강 안경 검안과

GOLD OPTOMETRY

L.A.: (213)384-1001 (로데오 갤러리아 몰내)  
G.G.: (714)530-1001 (가주 마켓 몰내)  
요셉 & 루시아 김 . ME 21차

## 테니스 레슨

모집대상 : 초, 중, 고, 일반  
코치 박개순 도미니코 310-997-7770

## 택시 TAXI

☎(310) 350-9540  
신 마르피노



Heather Chong (정혜경) Lic#0143602  
310-316-3400 자동차/주택/생명보험  
3655 Torrance Blvd #120 Torrance, CA

## 후코이단 네이처메딕

20300 S. Vermont STE 205 Torrance  
세계최초 후코이단+AHCC 업그레이드  
888-761-1188 (김상규 니콜라오)